

이병헌, '갓병헌'은 이렇게 탄생했다...연기 열정 폭발

영화 '남산의 부장들'
현장 비하인드 스틸컷 공개
"인생연기 갓생 했다" 평가



영화 '남산의 부장들' (감독 우민호) 이병헌의 현장 비하인드 스틸컷이 공개됐다.

21일 공개된 '남산의 부장들' 이병헌의 현장 비하인드 스틸컷에서는 평소 연기에 입할 때 이병헌이 어떤 자세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병헌은 스태프들 모두 비를 피하기 위해 우의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살수차의 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특히 그는 당시

연화에 가까운 온도에서 양복 한 벌만 입고 어려운 촬영을 마무리했다.

이어 미국 촬영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대본을 숙지 중인 이병헌의 모습이 포착됐다. 대본이 닳도록 읽고 외우는 이병헌은 현장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연기

자로 유명하다. 마지막 스틸은 아직 촬영이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감정을 놓치지 않으려 유지 중인 상황이다. 항상 김규평의 심리를 이해하려 노력했던 이병헌의 진지한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이병헌은 '남산의 부장들'로 인생 연기를 경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내부자들' 우민호 감독과 두번째 만난 이번 작품을 위해 한 것, 한 것 공들여 연기하는 장인정신을 보였다. 한편 '남산의 부장들'은 15세 이상 관

람가 작품답게 설 연휴 가족 관객들의 폭발적인 예매 지지를 얻고 있다. 1979년, 제2의 권력자라 불리던 중앙정보부장(이병헌)이 대한민국 대통령 암살사건을 벌이기 전 40일 간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오는 22일 개봉한다.

송가인 신드롬 통할까

tvN '사랑의 불시착' OST 설 연휴 깜짝 공개

송가인이 가창에 참여한 tvN '사랑의 불시착' OST가 설 연휴에 깜짝 공개된다. tvN 토일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극본 박지은/ 연출 이정호) 측은 오는 25일 12시 여섯번째 OST인 송가인의 '내 마음의 사진'이 발매된다고 밝혔다.

최근 '사랑의 불시착'이 5주 연속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제작진은 설 연휴를 맞아 기존 2월 발매 예정이었던 송가인의 목소리가 담긴 OST를 깜짝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내 마음의 사진'은 지난 8회 엔딩신과 10회 정하수 회상신을 장식한 곡으로 특히 8회 엔딩신은 윤세리(손예진 분)가 리

정혁(현빈 분)에게 자신의 진심을 애절하게 고백하는 장면을 아름다우면서도 서글픈게 장식해 화제를 모았다.

또한 송가인의 '내 마음의 사진'과 연작 형태로 이어지는 꽃비비 신 남자 가창곡과 연주곡 등 2곡도 연말이 26일 오후 6시 공개될 예정이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드라마 주요 장면에 삽입됐던 이 두 곡은 송가인의 '내 마음의 사진'과 같은 멜로디로 구성돼 있어 시청자들의 공감을 높인 바 있다.

이처럼 '사랑의 불시착'이 다양한 OST로 관심을 모으고 있어, 설 연휴에 기승 공개되는 연작 형태의 3곡 모두 드라마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백예린의 '다시 난, 여기'가 음원 차트 1위를 찍을 정도로 김재환의 '어떤 날엔' 역시 상위권을 달리는 등 '사랑의 불시착' OST들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어, 이번 송가인의 '내 마음의 사진' 역시 음원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건모-장지연 이미 함께산다"

장인 장욱조 · 장모 "이런 일로 헤어질거면 처음부터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가수 김건모가 그의 아내 장지연이 이미 지난해부터 신혼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모와 장지연은 지난해 10월 28일 혼인신고하고 법적 부부가 됐다. 21일 뉴스 취재 결과, 김건모와 장지연은 혼인신고를 마쳤을 즈음인 지난해 10월 말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신혼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

장지연의 부친인 유명 가수 겸 작곡가 장욱조와 그의 아내도 최근 진행된 여성조선과 인터뷰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하며 "둘(김건모 장지연 모두)이 잘 지내고 있다"며 "이런 일로 분당구 정자동에 처음부터 좋아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건모와 장지연은 지난해 5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뒤 사랑을 키웠고, 지난해 10월 말 혼인신고를 했다.

한편 김건모는 지난해 12월 6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의해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어 그달 9일 강용석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해 김건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김건모 측은 지난해 12월 10일 "성폭행 의혹은 사실무근이고 고소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그달 13일 김건모 측은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할 것"이라며 강남경찰서 A씨에 대한 맞고장을 제출했다.

김건모는 자신에게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여성 B씨도 고소한 상태다. B씨는 지난해 12월 가로세로연구소와 인터뷰를 통해, 김건모가 2007년 유흥주점에서 자신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렸으며,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당시 이 폭행으로 인와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건모 측 관계자는 이달 8일 뉴스1에 "최근 B씨를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후 김건모는 이달 15일 강남경찰서에서 약 12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후 "심려 끼려 진심으로 죄송하고, 성실하게 답변했다"며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고 추후 별도로 원하시면 또 나와서 조사를 받을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기리기리 많이 기대하세요"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MBC '기리기리' 제작발표회에 출연진들이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송인 장성규, 개그맨 박명수, 잭스키스 은지원, 배우 인교진, 개그맨 이용진, 모델 정혁, 인피터트 김성규, 배우 이수혁, 가수 겸 방송인 황광희, 전 농구선수 하승진. '기리기리'는 다수의 출연자가 성향 '기리' 나뉘어 펼쳐지는 국내 최초 성향 존중 버라이어티로 타고난 성향대로 똘똘 10인의 출연자들이 같은 성향 다른 텐션으로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공감,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지혜 "결혼 후 복귀하니 바로 출연료 깎이더라"

'자연스럽게' 전인화 소유진 한지혜가 경력 단절 경험담을 공유했다.

지난 20일 오후 11시 방송된 MBN 소확행 힐링 예능 '자연스럽게'에서는 전인화 소유진의 집에서 하루밤을 보낸 게스트 한지혜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토스트를 만들며 아침 준비를 하던 한지혜는 소유진이 온다는 소식에 "제 첫 드라마에서 함께 한 적이 있다"며 "거의 17년 전"이라고 설렘을 드러냈다. 마침내 소유진이 '인화 하우스'에 복귀하자 세 여

배우는 마음을 터놓고 결혼 생활부터 연기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경험담을 털어놓으며 수다 삼매경에 빠졌다.

소유진은 "삶과 일의 균형을 추구하는 시대인데, 임마가 되니 어디까지 희생해야 할지 모르겠더라"며 결혼과 출산 이후 연기자 생활을 계속하기가 '경단녀'(경력단절녀) 만큼 힘들었음을 토로했다.

이에 한지혜 역시 "결혼하고 좀 쉬었다 복귀하니 바로 출연료가 깎이더라"라고 답했고, 이에 소유진은 "애 낳으면 더 깎여"

라고 팩트 폭격을 해 웃음을 자아냈다. 또 소유진은 "애 낳고 연기로 상을 받게 되니 눈물이 앞을 가려서 무대에 올라 울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후배들의 이야기를 들은 전인화는 "나 역시 가정을 돌보기 위해 배우 활동 최근 성가라고 할 수 있는 '여인천하' 이후에 무려 7년을 쉬었다"며 "드라마 '제왕의 김탁구'로 복귀하게 됐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정말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인화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온다"며 후배들을 따뜻하게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 훈훈함을 자아냈다.

가수 故 유니, 사망 13주기

아역배우 데뷔해 2003년 가수 데뷔... '악플' 스트레스 커

가수 고(故)유니(본명 허윤)의 13주기를 맞았다.

유니는 지난 2007년 1월 21일 인천시 서구 마전동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유니는 1996년 이해연이라는 이름의 아역배우로 데뷔해 인기를 얻었다. 특히 KBS 1TV '신세대보고 어른들은 몰라요'에서 공주병에 걸린 학생 역할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후 KBS 2TV '슈퍼스타데이' 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1997년에는 잭스키스와 '세븐틴'이라는 영화를 찍기도 했다.

2003년 유니는 앨범 '가'를 내고 솔로 가수로 데뷔했으며, 2005년에 2집 '콜콜콜'(Call Call Call)을 발표해 사랑 받았다. 주로 파격적인 노출 의상과 섹시한 콘셉트로 주목을 받았다.

유니는 평소 악플(악성댓글)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았고, 우울증을 앓았던 것



으로 알려졌다. 세상을 떠날 당시 유니는 3집 앨범으로 컴백을 앞두고 있었다. 2005년 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외할머니와 단둘이 살았던 가족사를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